

【 해외금융 뉴스: 복미 】

빈발하는 자연재해로 보험회사 손실 확대 우려

- 재난위험 평가 전문업체 EQECAT는 빈발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2011년 미국 보험회사들의 날씨 관련 손실액이 예년 평균 20~40억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한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.
 - 미국 보험회사들의 경우 이미 일본과 뉴질랜드의 대지진, 호주의 홍수 등으로 큰 손실을 입고 있으며, 올해 허리케인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1년 날씨 관련 손실액은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
 - 버크셔 헤서웨이(Berkshire Hathaway)는 일본과 뉴질랜드의 지진으로 각각 10억 7천 달러와 44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며, 9년 만에 처음으로 보험영업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.
 - 한편 S&P 500 지수가 올 들어 4.7% 상승한 반면, S&P 보험지수는 연초 수준에 머무르는 등 투자자들도 자연재해 손실증가로 인한 보험회사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올 4~5월에는 미국 남동부와 중서부 지역을 강타한 초대형 토네이도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으며, 6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이어지는 허리케인 시즌에도 많은 피해가 예상됨.
 - 올해 발생한 토네이도로 인해 미국 내에서만 예년의 6배에 달하는 365명이 사망하였고, 토네이도 발생건수는 1,151건으로 2010년 일년 간 발생한 1,282건에 근접함.
 - 미국 최대 주택보험회사인 올스테이트(Allstate)는 토네이도로 인해 4월에만 14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하였으며, 하트포드(Hartford)도 2/4분기 자연재해 손실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힘.
 - 국가기상위성센터(NOAA)는 올해 허리케인 시즌 동안 예년의 11개보다 많은 18개의 열대성 폭풍과 3~6개의 메이저급 허리케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, EQECAT는 2011년이 사상 최악의 해는 아니지만 그에 근접한 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함.

(Reuters, 5/24)